

전갑수 “변화·혁신 실천으로 화합·단합” 김창준 “신나고 풍요로운 광주체육 건설”



5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74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220.20으로 종합점수 1위를 차지한 과천중 유영이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하뉴스

유영 피겨 종합선수권 싱글 3연패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

고난도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을 앞세운 유영(과천중)이 제74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3연패에 성공했다.

유영은 5일 경기도 의정부 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7.19점에 예술점수(PCS) 66.48점을 기록하며 143.67점을 받았다.

전날 열린 쇼트프로그램에서 여자 선수로는 국내 대회에서 처음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며 76.53점을 받았던 유영은 총점 220.20점으로 이해인(한장중·204.56점)과 김예림(수리고·199.31점)을 크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날 총점은 자신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공인 최고점인 217.49점을 넘는 개인 최고점이다.

이로써 종합선수권대회 3연패(2018년·2019년·2020년)와 통산 4회 우승(2016년·2018년·2019년·2020년)에 성공한 유영은 김예림과 함께 오는 3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0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연하뉴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선수선발 테스트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사업 결과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3일 체육회관에서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사업’을 통해 발굴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선수 선발 테스트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사업’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전문체육 선수 발굴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 사업을 위해 전광판, 시내버스, 엘리베이터 광고와 홍보블리تب 배포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고 284개 기관방문과 311명의 개별상담을 했다.

선수 선발 테스트는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장애인중 운동기능이 있는 수영 1명, 역도 2명, 육상 5명, 휠체어리빙 1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체력측정을 통해서 기초체력과 희망 종목, 특기 종목을 파악하고 2차로 전문체육지도자의 종목테스트를 실시했으며 테스트를 통과한 2명의 선수는 광주장애인체육회 대표 선수들과 함께 전문체육지도자의 지도하에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테스트 대상이었던 9명중 2명은 전문체육 선수로 육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7명은 체력훈련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전문체육선수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광주시체육회장선거

오는 15일 실시되는 첫 민선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전갑수 전 광주시배구협회장과 김창준 전 광주시체육회 고문단장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 5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2일 김영구(취세진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양진석 전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이 전갑수 전 회장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고, 하상호 빅스포 대표이사도 지지를 선언하면서 선거는 2파전으로 압축됐다. 5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선관위의 기호 추첨 결과 전갑수 후보가 1번, 김창준 후보가 2번으로 결정됐으며 후보들은 6일부터 9일간의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지면으로 옮겼다.

◇기호 1번 전갑수 후보

전갑수 후보는 ▲희망 학교체육 ▲금지 전문체육 ▲행복 생활체육 ▲동행 화합체육 ▲변화 혁신체육 ▲안정 자율체육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다. 전 후보는 초·중·고등학교 시절 배구

전문체육·생활체육 아우르는 정책 펼칠 것
체육인은 만족 시민은 행복한 광주체육 견인

안정적인 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
우수선수·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확대

선수로 활동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지도자로 후진 양성에 나섰던 시간을 돌아보며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단계와 각 종목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천 가능한 공약을 세웠고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기인 출신 성공한 사업가로서 사재를 출연해 호남대 여자배구팀 창단을 뒷받침하고 광주체육인재장학기금을 통해 수년간 기부도 이어왔다”며 “이제 광주체육은 민선화장 시대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희망을 꿈꿔야 할 시점이며 혁신하고 화합할 참신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갈등은 있어도 안 되고 편갈림은 더욱 안된다.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으로 하나로 이끌어갈 체육인과 시민의 역량이 결집

될 것”이라며 “전문체육·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체육인은 만족하고 시민은 행복한 광주체육”을 이끌어가기 위해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하는 체육행정을 펼치겠다는 설명이다.

학교체육도 강조했다. 전 후보는 “학교체육이 빠르게 기능해야 광주체육의 미래가 있다. 꿈나무 선수들이 잘 성장함으로써 광주체육의 기틀이 탄탄해지는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육인재 양성에 열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덧붙였다.

전 후보는 “광주체육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눈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기에 체육회장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며 “광주체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진정한 ‘광주체육 원년’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기호 2번 김창준 후보

김창준 후보는 ▲안정적 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 ▲경쟁력 있는 전문체육 육성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광주체육인의 복지 확대·소통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민과 체육인을 위한 신나고 풍요로운 광주체육을 건설하겠다”며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했던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초대 민간체육회 22의 도약을 앞둔 광주체육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정적인 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을 내세운 그는 “재정의 절대적 부분인 시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및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광주체육 지원단을 결성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각종 규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 경쟁력 있는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 유능한 체육인재들이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 등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졸업 후 실업팀과 연계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종목단체 운영비 및 전국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 지원비를 확대, 종목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계획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열악한 구체육회 종목단체 행정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각자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며 “각종 구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통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김 후보는 “광주체육인 전용 대형실내체육관을 임기 내에 건립하고 대한체육회와 원만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광주지역 체육인재가 중앙체육에 보다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체육인의 복지 확대 및 소통강화를 약속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도시공사 혈투 끝 SK와 무승부

8점차 추격 불꽃승부

32-32...강경민 MVP

국가대표 원선필 합류후

최근 2경기 1승1무

1승이 버거웠던 팀이 아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부산시실용단을 상대로 시즌 첫승을 챙긴 광주도시공사가 이번에는 준우승팀 SK 슈가글라이더즈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5일 경남 마산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SK 슈가글라이더즈와의 경기에서 32-3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3일 대구시청을 상대로 22-17로 승리를 거둬 2016시즌 이후 3년여 만에 시즌 2승을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무승부로 시즌 2승1무2패가 됐다.

국가대표 원선필의 합류로 팀 전력은 업그레이드 됐다. 수비는 탄탄해졌고, 원선필을 막기위해 상대 수비가 틈을 보이지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은 자신감있게 슈팅을 시도했다. 슈팅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시즌 2승을 거둔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SK 슈가글라이더즈를 맞아 연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전반 17분까지 7-7로 팽팽히 맞서던 광주도시공사는 SK 최수지, 김은아에 득점을 허용하고 상대 골키퍼 용세라의 선방에 리드를 내주면서 13-16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 시작도 좋지 않았다. 슈팅이 번번이 빗나갔고 후반 10분



5일 경남 마산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광주도시공사-SK 슈가글라이더즈 경기에서 광주 강경민(24번)이 SK 수비를 뚫으며 슈팅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에는 16-24 8점차까지 뒤졌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15분 이후 원선필, 강경민, 서아루의 득점 성공에 22-26으로 추격을 시작했고, 22-27에서 강경민, 김금순, 서명지, 최지혜가 연속 득점, 후반 23분 27-27 동

점을 만들었다. SK도 물론 만만치 않아 다시 리드를 내주는 듯 했지만 광주도시공사는 끝까지 따라붙었고 후반 28분 31-31 동점을 만든 뒤 다시 강경민의 득점으로 32-31 역전으로 성공했다. 후반 29분 32-32 동점을 허용한 광주도시공

사는 경기 종료 휘슬과 동시에 9m드로 우 기회를 잡았지만 상대 수비에 막혀 어렵게 스코어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 18득점4도움을 기록한 강경민은 MVP로 선정됐다.

역시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수비는

잘 났는데 원선필과 기존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지 얼마 되지 않아 공격에서 손발이 안맞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뒤진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김효기·한용수 영입 전력 보강

김-프로 11년차 베테랑 공격수·한-빌드업 강점 수비수



김효기

한용수

광주FC가 베테랑 공격수 김효기(33)와 수비수 한용수(29)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시즌 경남FC에서 활약한 김효기(179cm 75kg)는 올해 프로 11년차로 2010년 울산 현대에서 데뷔해 전북

현대, FC안양, 경남 등을 거치며 프로 통산 126경기 28골 9도움을 기록한 베테랑 공격수다.

뛰어난 센스와 침착한 마무리가 장점이며 특히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공격까지 소화 가능해 광주로서는

다양한 공격옵션과 노련함을 얻게 됐다.

김효기는 신인 시절 임대를 떠난 울산미포조선에서 박진섭 감독과 한술밥을 먹은 인연이 있다. 당시 박진섭 감독과 함께 공격과 수비 진영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2011 내셔널리그 MVP와 소속팀의 우승에 기여하기도 했다.

수비수 한용수(184cm 80kg)는 김영민과의 트레이드로 광주에 등지를 들었다.

뛰어난 헤더와 판단력, 몸을 사리지 않는 대인 플레이와 볼 처리가 좋은 중앙수비수로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로 공격전개 시 빌드업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17 청소년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2011년)에서 기량을 발휘한 한용수는 2012년 드래프트 1순위로 제주에 입단, 데뷔 첫해 23경기를 소화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최진화 기자